

# 김총리 “다스릴 政 아닌 초코파이 情으로 행정을… 국민 입장에서 역지사지”

이재명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제  
“국민 기본적인 삶·생명 가장 중요” 민생·안전 강조  
체감물가 안정 총력 대응 지시… 주거·재난 대책도 점검  
폭염작업 시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지도·점검 실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치나 행정이 ‘다스릴 政(政)’이 아니라 ‘초코파이의 情(情·뜻 정)’이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결국 정치나 행정이나 역지사지”라며 “모든 대책의 통상성과 고식성, 습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당사자들이 체감으로 달라졌네 하고 느낄 수 있는 걸 찾아내는 집요함과 창조성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장관회의에서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등을 지시하고 서민 주거안정대책, 여름철 폭염 등에 대비한 국가재난대응체계 및 전력수급 대책 등을 점검했다.

그는 “우리가 논의하는 물가·주거·재난 대책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역지사지(를 해야 한다)”며 “서비스를 받는 분이자 엄격하게는 우리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국민의 공복 입장을 취해야 한다”

고 했다. 이어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국정의 책임을 위임받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해나갈 자세가 돼야 한다”며 “새로운 관점과 원칙과 철학으로 마음가짐을 다듬는 것이 물가, 주택 또 재난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다듬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민생과 안전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 총리는 우선 체감물가와 관련해서는 범부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은행 지표로 생활물가가 4년 간 19% 넘게 상승했다. 지난주 고위당정에서도 그 문제를 다뤘고 정부는 오늘도 논의를 하겠지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며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문에 대해서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에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관리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 휴가철(7월 17일~8월 6일) 농축산물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40% 할인을 지원한다.

서민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며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달

라”고 했다. 또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점검도 필요하다고 했다.

여름철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재난 문제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제 폭염은 기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개

인으로는 생업이고 국가적으로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두 달간 전력수급 대

체기간으로 정해 대응 수위도 높인다. 김 총리는 “역대 최대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대형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다”며 “예비 자원도 확보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 전기요금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시스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취임… “해수부 부산 이전 반드시 될 것”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10일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라며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실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한다면 하는 정부이기엔 해수부는 반드시 이전될 것”이라며 “해수부 이전은 해양수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복극 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 이전을 놓고 지역 내에서 벌어

선결 과제로 ‘5극 3특·세종 행정수도 완성’ 제시  
해수부 부산 이전 강조… 조직 격상 가능성 시사  
자치분권 핵심으로 ‘자율과 책임·신뢰 구축’ 강조

지는 갈등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들을 현장에 가서 함께 소통하고 찾겠다”며 “관계부처들도 직접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며 가장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로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꼽았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추진을 골자로 한다. 그는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5극 3특 전략의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이어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 계획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지금도 매년 5만명 가까운 인구가 비수도권을 떠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

러지고 있다”며 “이제는 수도권조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예시로 ‘기회발전특구’를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보다는 중앙 정부의 공모 사업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따내야 하는 상황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에게 자율성이 없는 현실을 균형발전정책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들의 ‘뿌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자율과 책임 ▲신뢰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며 “5극 3특 전략은 지방정부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시스

## “윤석열 재구속은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강기정 광주시장, SNS 글 “무더위 근로 현장 점검 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10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정호 대령은 무죄 확정, 윤석열은 구속 수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다”며 “무더위에 지친 현장을 찾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중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

방된 이후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 광주에 지속되고 있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을 다녔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무더위가 폭두바이 모래사막처럼 뜨겁다”며 “길거리에 시원한 물 뿌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염에도 쉴 수 없는 곳이 있다”며 “지하철 공사장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전남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금호지구입구사거리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이날은 관중석 교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프로야구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김병남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유진건설산업(주) 철근콘크리트공사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14, 502 (062) 655-1370 대표이사 정길화